



NEWS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평화신문이 여러분의 신앙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새롭고 다양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신앙이 도전받는 위기의 시대에 신자들의 동반자이자 신앙 생활의 길잡이로서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열고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한 기획입니다.

■ 2019년 연중 캠페인 '평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공동 목표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은 올 한해 갈등과 분열, 다툼이 있는 사회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대화와 신뢰의 다리를 놓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 남북한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용감하게 나서서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외치겠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신문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겠습니다.

■ 교부들의 사회교리

초기 교회의 시대에서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뵈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려고 헌신했던 교부들의 치열한 성찰과 생생한 증언들을 소개합니다.

■ 사도행전 이야기

갈릴래아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절정에 이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당시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파되는지 사도행전을 따라 생생하게 추적합니다.

■ 나는 평신도다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자기 소명을 따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세상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제로 구현하는 이들입니다. 평신도의 삶을 지탱해 줄 영성을 쉽고 명쾌하게 조명합니다.

■ 사랑나눔캠페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는 매주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의 사연을 소개하고 공개 모금하는 캠페인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을 통해 2018년 12월 말 현재 성금 119억 4390여만 원을 총 859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은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가 교회와 사회에 가장 모범적인 기부 문화 캠페인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톨릭평화신문은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은 누리집과 페이스북, cpbc 앱(App)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하세요!

누리집: cpbc.co.kr/newspaper

페이스북: facebook.com/cpbcnewspaper

앱(App): cpbc애플리케이션 다운 → 가톨릭평화신문

■ 가톨릭평화신문은 신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보 및 독자투고: pbcppeace@hanmail.net

구독문의: (02)2270-2525~8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여행상품소개

여행상품 문의: 02)2266-1591~2

※ 상기 일정은 항공과 현지사정으로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성모발현지, 벨기에-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3월23일~4월4일 (12박13일) | 378만원
4월22일~5월4일 (12박13일) | 388만원



• 터키 일주
4월2일~12일 (10박11일) | 359만원



•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4월7일~15일 (8박9일) | 338만원



• 일본 나가사키
4월8일~11일 (3박4일) | 120만원



• 솔렘 수사님들과 함께하는 성삼일 전례와 프랑스 북부 성지순례
4월14일~24일 (10박11일) | 489만원



• 포르투갈 일주
4월22일~5월1일 (9박10일) | 358만원